



임실경찰서, 피서철 성범죄 예방 활동 집중 실시

임실경찰서(서장 최규운) 여성청소년계에서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 피서객이 많이 찾는 공원 등 야외활동 지역을 중심으로 성범죄 발생 위험지역에 대해 선제적 점검 및 예방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성범죄예방 활동은 공원, 역, 터미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대하여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범죄 요소를 사전 제거하며, 특히 시설 내외 화장실 등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취약지점에 대한 직접 순찰을 실시하여 인적·물적 범죄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있다. 불법카메라 촬영은 카메라나 기타 유사한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다. 최규운 임실경찰서장은 여름 휴가철 성범죄 사각지대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업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치안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다짐이다. 성범죄는 피해자는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로 상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장수소방서, 여름철 온열질환 주의 당부

장수소방서(서장 최경천)는 최근 장수군의 낮 최고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여름철 지속되는 폭염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무더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어지러움·두통·근육경련·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보이고 계속해서 방치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최근 5년간(2018~2022) 전라북도 내 온열질환자는 총 123명으로 연령별로는 60대, 80대, 50대 순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68명(55.3%), 열경련 26명(21.1%), 열실신 18명(14.6%)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수소방서는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낮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일정 시간 간격 그늘에서 휴식 △충분한 수분 섭취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온열질환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119로 신고하고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서늘한 곳으로 이동해 옷을 헐렁하게 하고 젖은 수건 등으로 몸을 식혀 체온을 낮춰야 한다. 한편, 장수소방서는 폭염에 대비해 폭염구급대를 지정해 얼음조끼·생리식염수·전해질 용액 등 폭염대응 구급장비 9종을 구비해 온열질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최경천 장수소방서장은 "잠마철이 지나가고 무더운 날이 지속되는 요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건강관리에 신경써 안전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세계잼버리 폭염 대비 얼음물 지원 잇따라

부안지역 사회단체·권익현 군수·얼음물·부안수협·냉동창고 등 지원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한 158개국 4만 3000여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연일 35도를 웃도는 폭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부안지역 사회단체들이 폭염 대비를 위한 얼음물 지원에 나섰다. 부안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부안군 지역발전협의회, 부안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부안군 학부모협의회, 부안군 하서초등학교 구성원 일동 등 부안지역 5개 단체는 4일 세계잼버리조직위원회에 폭염 대비 얼음물 4만병을 지원했다. 이날 부안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부안군 지역발전협의회, 부안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각각 얼음물 1만병, 부안군 학부모협의회와 부안군 하서초등학교 구성원 일동이 각각 얼음물 5000병을 지원해 폭염에 지친 스카우트 대원들의 안전한 활동을 기원했다. 또 부안서해로타리클럽도 세계잼버리 기간 동안 매일 출포만 갯벌생태공원 영외과정활동장을 찾아 얼음물과 아이스크림 등 폭염 대비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부안수협 역시 이들 단체에서 지원한 생수를 얼릴 수 있도록 냉동창고를 지원하는 등 부안군 지역사회 전체



가 스카우트 대원들의 폭염 극복을 위해 손을 맞잡고 있다. 앞서 권익현 부안군수 역시 이날 오전 세계잼버리조직위원회에 스카우트 대원들의 폭염 극복을 위한 얼음물 1만병을 지원한 바 있다. 얼음물을 지원한 한 단체 관계자는 "세계잼버리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폭염에 고생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내 지식, 내 손주 같아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참가 청소년 모두가 안전하게 세계잼버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청소년들, 강서구 역사·문화탐방 실시

정읍 청소년 24명이 강서구청 행정지원과 직원들의 인솔 하에 8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 동안 강서구를 방문하여 강서구의 역사·문화를 탐방했다. 정읍시와 강서구의 자매결연으로 추진된 이번 활동은 정읍시 인재양성과의 청소년 지도사들이 인솔 교사가 되어, 강서구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명소들을 방문했다. 활동에는 국립항공박물관, 서울식물원, 강서별빛우주과학관, 국회의사당 등을 방문하여 기내훈련체험, 온실견학, 국회 분회회장 참관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진행하여 강서구를 방문한 정읍 청소년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해당 사업은 청소년들이 상호 지지체를 교차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간 강서구



청소년 27명이 정읍을 방문하여 정읍의 역사·문화를 탐방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 중앙지구대·자율방범대, 야간 합동 순찰

남원경찰서(서장 김철수) 중앙지구대(대장 유홍택)는 지난 3일, 지구대 관내 자율방범대와 범죄예방을 위한 야간 합동 순찰을 진행했다. 최근 다중운집 장소에서의 흥기 난동 사건 등 시민 불안

이 높은 상황으로, 이날 중앙지구대 직원들과 자율방범연합회 1지대 대원 총 20명은 도심 변화와 범죄취약 지역 인 구 역전 향기원을 중심으로 취약요소를 집중점검하고 순찰 중 대원들의 애로사항과 주민들의 현장 민원을 청취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 내장상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교육

내장상동은 지난 4일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5명을 대상으로 혹서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안전교육은 폭염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건강 보호를 위해 진드기 매개체 감염병 예방, 폭염 예방 행동요령, 온열질환 응급처치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내장상동은 혹서기인 7월과 8월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더운 시간대(12:00~17:00)를 피해 활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중이다. 김신철 내장상동장은 "폭염대비 어르신들이 항상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하시길 바란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온열질환 등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수행기관 담당자한테 즉시 연락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소방서, 소아 심폐소생술 홍보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가 피서철을 맞아 가족 단위 여행이 증가하면서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영·유아, 소아 심폐소생술을 홍보하고 있다. 심폐소생술은 3가지를 기억해야 하며, 1번은 깨우기로 8세 이하 소아의 경우 어깨를 두드리고 말을 걸어 의식을 확인하고 1년 미만의 영아는 발바닥을 쳐서 확인하도록 한다. 2번은 119로 신고하기로, 다수가 모여 있는 장소에서는 특정 인물을 지목하여 119 신고를 요청해야 한다. 특정인을 지목하면 책임감으로 구조 요청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며, 신고는 음성전화 외에 영상통화, 메시지,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3번은 누르기로, 소아와 성인은 장기의 크기가 달라 압박 위치도 다르게 적용해야해 1년 미만 영아의 경우 아이의 고개를 살짝 들고 뒷목 사이와 정중앙 바로 아래 부분을 검지와 중지 사용해서 4cm 깊이로 빠르고 일정하게 압박하고, 소아의 경우, 고개를 살짝 들고 한 손으로 손뼉치를 이용해 가슴뼈 아래 1/2 지점을 빠르고 일정하게 압박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용지면 지사협, 취약계층 가구 방충망 설치

김제시 용지면(면장 조원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병삼)는 지난 3일 노인가구 및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현관문 방충망 설치 활동을 전개했다. 여름을 대비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사업은 용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취약계층들의 시원한 여름을 나기 위해 현관문에 방충망을 설치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Table with columns for regional offices: 전주지사, 임실지사, 남원지사, 김제지사, 순창지사, 부안지사, 고창지사, 완주지사, 사안지사, 익산지사, 군산지사, 옥산지사, 호남지사, 전주지사, 임실지사, 남원지사, 김제지사, 순창지사, 부안지사, 고창지사, 완주지사, 사안지사, 익산지사, 군산지사, 옥산지사, 호남지사.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